

Mabuhay, 필리핀!

Mabuhay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전충남지원 축산물품질평가사 이재익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다소 서늘한 가을 새벽 공기를 가르며 6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의 로비에 집결을 하였다. 피곤하고 부스스한 모습들이었지만 긴장, 기대, 희망 또는 국제협력을 잘 마치고 돌아오리라는 비장함까지도 들었다. 4시간 남짓의 시간동안

• Mabuhay

프레젠테이션, 이동경로, 미팅 장소, 일정 확인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체크하였다. 니노아키노 국제공항의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아열대성 특유의 높은 습도 그리고 더운 열기에 순간 당황스러웠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필리핀 공항만의 특이한 향이 독특하다. 공항에서 만난 가이드와 필리핀 카라바오센터(PCC)에서 파견 나온 직원의 환영을 받으며 호텔로 이동하여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을 논의 하였다.

2011년 11월 8일 화요일

공식적인 첫 일정이 시작되는 날인만큼 긴장감도 부담감도 많이 있었다. 아침 식사 중에 오늘과 내일이 가장 힘든 일정이라고 겁을 주었다. 케존시에 위치한 정부기관 들은 부서별로 모여 있었다. 오늘과 내일의 모든 일정을 섭외해준 PCC 센터장 크루즈박사와 만나 기관 방문시 동행하기로 하였다.

아쉽게도 축산국장만 만날 수 없었지만, 축산부국장과 축산개발부장을 만나 필리핀 축산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를 받았다. 우리기관 소개 부분에서 공공기관 과 축산업에서의 우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초반의 무반응과는 달리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면서 관심과 수많은 질문 세례를 받았다. 향후 우리 기관이 국제협력을 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적극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축산국(Breaue of Animal Industry)





국립육류검사소(National Meat Inspection Service)

우리나라의 국립수의과학
검역원과 지자체 소속의 축산위
생연구소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사전에 협의된 대로 작은 컨퍼런스룸이
마련되어 있었다. 마침 다른 사무실에는
우리나라 검역원 직원들과 미팅이 진행되고
있었다. 기관 소개 및 방문 목적에 대한 프레
젠테이션을 하였고 국립육류검사소의 소장
(바카요)이 현황 설명 및 축산관련 사업의 소개를
하였다. 2시간 가량의 양 기관의 긴 토론은

양국의 축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축산국과 국립육류검사소의 방문 일정으로 농어업국과 미팅은 점심
식사와 함께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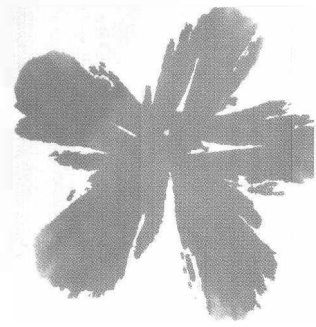
빠듯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북쪽으로 3시간을 달려갔다....

중국인이 경영하는 필리핀 루손지역의 2번째로 큰 호주산 수입생우
농장이다. 호주산 생우(200kg)를 수입하여 단기 비육을 시켜
환율차익 및 부산물 수입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비육우 농장
이었다. FMR 사료 제조와 풍부한 조사료의 공급으로 안정
적인 수입을 얻는다는 사장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인 PCC 숙소로 출발하였다.
좁은 길과 많은 차 협소한 교통 환경으로 인하여
많이 지체있었다. 저녁 9시쯤이 돼서야 PCC
에 도착하였다 배고픔과 피로가 극에 달했
다. 식당에는 PCC 센터장 이하 모든 간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퇴근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따뜻하고 정성어린 환대에
모든 피로가 잊혀졌다. 유쾌하고 즐거운
만남으로 PCC에서의 밤은 그렇게 깊어
갔다.



SPC 농장



2011년 11월 9일 수요일

PCC 센터장과 조찬 후 약 50여명의 PCC
연구원을 대상으로 기관 소개 및 홍보를
하였다. 이력제와 이력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문이 주류를 이루었다. 좋은 강의 시설과
많은 청중 앞에서 기관 소개를 하니 웬지
힘이 났다. 기관 소개 후 PCC의 각 부서
를 방문하여 부서장들의 설명을 듣고 카라
바오 사육 농장을 방문하여 착유 및 사육
현황을 둘러보았다. 연구센터 앞에서 간단한
선물 증정식과 기념 촬영을 뒤로 하고 PCC를
떠났다.

마닐라로 복귀하는 중 Mother Earth라는 도축장
과 육가공장을 방문하였다. 필리핀의 관습과 더운
날씨로 인하여 주간 도축을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주간 도축과정을 볼 수 있었고 국립육류검사소
장의 승인을 얻어 도축 과정 참관하고 양국의 도축시설, 품질
관리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필리핀 카라바오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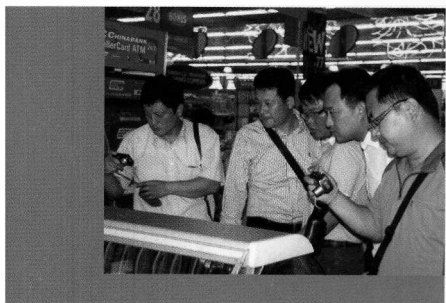


2011년 11월 10일 목요일

KOICA 필리핀 사무소를 방문하였다. 김영란 부장으로부터 필리핀 국제협력사업의 현황, 사업 규모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우리원의 국제협력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협의 하였다.



오후에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방문하였다.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판매의 주를 이루었고 부분육 판매부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였으나 냉장보관 및 위생수준은 많이 낙후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스페인과 미국령의 지배를 받아서인지 가공육(햄, 소시지)과 치즈의 종류가 다양하고 소비가 잘 되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필리핀 역사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필리핀의 역사와 언어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2011년 11월 11일 금요일

긴장이 풀린 탓인지 마지막날의 아침은 피곤함이 몰려왔다. 하지만 모두들 하루 더 머물렀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하였다. 긴 여행거리, 더운 날씨와 습도, 빠듯한 일정 등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원의 국제협력을 위해 협조해 준 필리핀 팀원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지금 우리의 행보가 호숫가에 돌을 던지듯이 막연한 것 같지만 훗날 양국의 축산발전 및 국제협력 관계에 시금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이번 여행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원장님 이하 담당부서의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한다.